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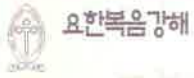
2005년도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행동지침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4)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4절).

생명은 인간의 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1. 육신적 생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 생명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시므로 사람은 비로소 생명(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3절).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예수님이 지어주셨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티끌, 먼지’를 의미 합니다. 인간은 티끌로 지어진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 139:14).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지으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듯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뱀이 먹어야 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시오”(시 1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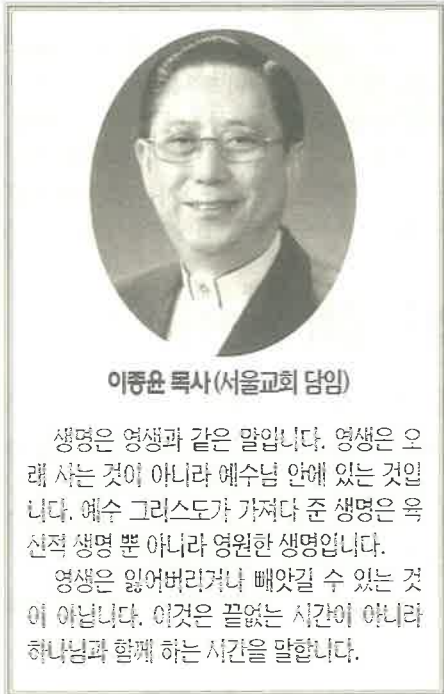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첨단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체질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의학은 통계일 뿐입니다.

날아다니는 먼지가 스스로를 높이려면 역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지임을 인식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거니와, 먼지가 교만하여 뿔을 낸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크’, 다 른 말로 성령이며 또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할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살려주는 영은 영어로 ‘life-giving spirit’로 읽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내쉬고 인간이 그 숨을 마시므로 살게 되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생명은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생명은 육신적 생명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2. 영적 생명

우리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비오스(생물학적 생명)’, ‘조에(영적 생명)’, ‘프시케(지상의 생명)’로 3개가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영적 생명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허물’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을 말하고, ‘죄’는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살 길이 없습니다.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 2:4).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홀이 풍성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의 고통은 한 번도 작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는 새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3.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요일 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 5:11).

생명은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생명은 육신적 생명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생명은 아들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요 10:10).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궁핍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시 23:1).

예수님만 모시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게 될 터이니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년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시작

2월21일(월)-22일(화) 이틀간 교회에서

2005년 겨울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금번 겨울 성경학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겨울성경학교 강사로는 이중운 담임목사를 비롯한 각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서게 된다. 따스한 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교회 어린이들이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한편 사랑부는 겨울 성경학교를 오늘 사랑부 예배 시간에 갖는다.

서울교회 해군사관학교 59기 졸업파송예배 주관한다

2월23일(수)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그 영역을 더욱 넓혀 해군사관학교 59기 졸업파송예배도 우리교회가 주관하게 되었다.

해군사관학교 59기 파송예배는 23일(수)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 드리게 되며 우리교회 이중운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된다. 또한 이날 이 목사는 해사 졸업생

전원에게 특강도 한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군이 복음화 되고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우리교회는 지난 수년간 육군 사병들을 대상으로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육군 사관학교 세례식 및 졸업 파송예배도 주관하여 군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 청년부 토요일 연합집회 갖는다

2월26일(토)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월의 마지막 토요일(2월26일)에 우리교회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집회를 갖는다. 특별히 이날은 전 세종대 행정학부 정일화 교수를 초청하여, "오늘의 국제 정세와 한라도"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정일화 교수는 한국

일보 논설위원으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바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집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히 매일 마지막 토요일에는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목회 정보담당 목사 청빙 및 명지대 사목 파송 변경

교회 Homepage와 음향관리를 책임질 목회정보 담당목사를 청빙한다. 목회 정보담당 목사로는 우리교회 전도목사로 명지대 사목으로 수고하고 있는 황선철 목사가 수고하시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황선철 목사가 사역하던 명지대 사목으로는 박광일 전도사가 파송된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행사

2월27일(주) 오전10시 601호실에서

고등부는 2월 27일(주일) 오전 10시부터 고등부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신 고등부 학부모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5 고등부학부모초청주일' 행사를 열어 올해 고등부의 교육계획을 소개하고 학급별 담당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고등부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한 부모님들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

2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월 성경 통독자 시상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 우리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자 시상을 하고 있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더그립을 기념으로 드리고 있다.

- 4등: 유이상 집사(6교구)
- 2등: 이운영 권사(5교구)
- 1등: 서경선 집사(1교구) 오길탁 집사(1교구)
- 김원중 집사(2교구) 황보주자 권사(6교구)
- 김대호 장로(8교구) 송옥혜 권사(9교구)
- 김선미 권사(11교구) 이이래 학생(11교구)
- 김광선 장로(12교구) 김자영 성도(12교구)
- 김진영 권사(12교구) 나미송 집사(12교구)
- 이미송 집사(13교구) 최낙준 집사(14교구)

-단신-

한 성도가 익명으로 연세 높으신 성도들을 위해 돌보기안경 55개를 기증하였다. 성도들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반납하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성구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에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개역개정판 시125:1-2)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re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shaken but endures forever. As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so the LORD surrounds his people both now and forevermore. (Psalm 125:1-2 [NIV])

만민에게 전도

해군과 해병대! 또 하나의 황금어장

이갑진 장로(비전 2020)



우리 교회는 2월23일(수) 오후 3시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59기 졸업반 기독교생들의 졸업 파송예배를 주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군과 해병대 장교 양성의 요람인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예배를 우리교회가 처음으로 주관함으로써 해군, 해병대의 미래 지도자를 위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중운 목사님께서서는 졸업반 생도 전원을 대상으로 오후1시부터 특별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교회 교인들과 여호수아회(매주 화요일 우리교회에서 모이는 예비역 기독교교회)의 김영관 전 해군 참모총장(해사1기)과 회원들, 한국 기독교인회(KMCF) 대표 등

8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졸업반 기독교생도 90여명을 포함한 350여명의 현지 인원들과 함께 해사교회에서 졸업 파송예배를 드리고, 졸업선물과 축하연 및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빼어난 경관의 옥포만에 자리한 사관학교도 둘러보고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함정전학도 할 예정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물동량의 95%가 바다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갑니다. 흔히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국가안보의 보고이며, 해군과 해병대는 이 보고를 지키며, 그 지경을 넓혀가는 주역들입니다. 그들은 망망대해의 파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가항력의 환경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초급장교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해군과 해병대, 그들은 군 선교의 또 하나의 황금어장입니다.

▶23사단 진중세례식

사순절의 묵상

구원의 강물이 세상을 덮어

오정수 장로(9교구)



땀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두려
울 속에서도 홀로 깨어 기도하시
는 예수님.

오로지 말씀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 가시며
아려지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네

은 삼십 받은 유다의 마음 부유치 못하고
블 적던 베드로의 몸 딱딱하지 않구나
군중이 두려워 예수님 넘겨준 빌라도
웃 짓으며 울부짖던 대제사장
세상의 어느 것도 온전한 것 없네

호산나 찬송하며 파르던 이들
가시 땀뻘 끈 쓰신 예수님 조롱하며
가르치고 기도하시던 감람산에는
이제 햇불과 무기만 가득하구나
순수한 주님의 육신 찢기고 터져서
골고다 언덕 피로 물들고
절망 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

주님의 보혈 강을 이루고
구원의 강물 세상을 덮어
우리를 온전케 하는구나
절망이 소망되어
세상에 빛 비추네

기쁨이 나를 이끌며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던 고난의 길
영광과 감사의 찬란한 길
나 - 가려네
나 - 가려네



반갑습니다

깨어난 영혼으로

정창빈 집사, 김숙연 집사(4교구)



지난 해 10월 첫 주, 서울 교회에 등
특한 정창빈, 김숙연 집사님 내외는 요
즘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한다.

지난 해, 13년간 섬기던 교회를 부
득불 떠나야 했을 때 정 집사님 가족은
어디를 가야할지 참으로 막막했다고
한다. 마침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서울 교회를 권해주셨고, 정 집사
님은 예배드리러 온 첫날 그만 마음이
눅고 말했다. 그 날 이종운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주
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
면서 광풍을 만나 놀라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
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정
집사님은 그 날 20년 가까운 자신의 믿음 생활이 주마등같
이 스치며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교회는 결혼 후 아내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지만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내면에 항상 계셨던 하나
님, 삶의 질곡이 있을 때마다 찾고 부르던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리 신실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금은 시간 시간 끝숨이 같이 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내 아쉬워 새벽 예배에까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에 여념이 없고, 그런 자신에 대해 정 집사님은 20여년의 신

앙생활이 지난 석 달만도 못했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며
기름진 풀이 있는 초장으로 양을
이끌어 풀을 베블리 먹이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일 것이라고 한다.

전과 많이 달라진 남편의 모습
을 보며 부인 김숙연 집사는 놀랍
고 기쁨 따름이다. 자신은 교회학
교 초동부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
며 예물 드리는 동방박사 역할을
할 때,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예수님
을 영접했는데 남편을 향해서는 항
상 안타까울 뿐이어서 기지개를 펴
고 잠에서 깨어난 듯한 지금 남편

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도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초신자처럼 매일이 기쁘고 새롭다고 한다.

정 집사님 내외는 8주 과정의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정
집사님은 지금 베들레헴 찬양대를 섬기며, 김 집사님 역시
찬양대 양성반이 3월에 개강하는 대로 등록하여 이수하면
찬양대를 섬길 생각이다.

다만 딸 희진(청년부)과 아들 희범(대학부)이 먼저 교회
의 친구들을 잊지 못하여 조금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안타까
워 빨리 서울 교회에 적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허수(편집부)

겨울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일규전목사(에바다부 지도)



에바다부가 2월28일~3월1일
수련회에 에바다부 그리고 서울교
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에바다부는 농인 뿐만 아니
라 수화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 또는 농
인들과 교제하며 수화로 대화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참
여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양
평 낙원펜션에서 갖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
는 공동체가 되는 에바다부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며
은혜롭고 오래도록 기억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
다.

사랑하는 에바다부 그리고 서울교회 가족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
니까?

각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익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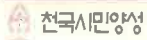


살림!
분단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
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서울교
회에 탈북 동포들을 위한 성경공부
반인 '디아스포라' 부가 만들어진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시 2005년도 겨울수련회를 2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서울교회에서 갖게 됩니
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남한 사회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부 식구들에게 있어서
삶의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 기는데
그 중심을 두고 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믿음 가운데 2005년 '디아스포라' 부 겨
울수련회를 "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성
경읽기의 목상, 그리고 다양한 상담과 기도회를 진행하
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장년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유승순 장로 (장년2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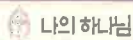


서울 교회가 교회학교학생 만명 출석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유, 초, 중, 고등부 뿐 아니라 대학, 청년, 장년부 등 서울교회 교인은 누구나 성경공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장년부는 30대 이상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1부 예배 후(오전 10부터 10시 40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중보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동산을 허락하셨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에덴동산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과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죄의 중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들은 갈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말고 장년부 교회학교에 참여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쥐고...

고은실 (대학부)



저는 지난 2004년 하반기동안 반전과 반전 끝에 취업에 성공해 올 1월부터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사실 아직도 휴가라는 말보다는 방학이란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생생한 취업준비 기억과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설렘이 살아있는 지금,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 자신에게도 과거를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주고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입사 준비하느라 마음이 고단해 몇 달간 교회 봉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일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이 글을 쓰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한다면 과한 욕심일까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왜 그리도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주셨는지 문해 보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하심이 이와 같았음을 깨달았습니다.

4학년에 올라와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충만했던 자신감을 한 번 두 번 실패를 겪으며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불안해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만 남아있던 그 때. 그런 시간 속에서 좌절치 않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뤄짐

을 믿습니다."하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동안 밝은 빛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는 동안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제 단점을 하나씩 고쳐나갔고, 이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보다 여유롭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1달 반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행스럽게 회사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합숙 기간 중 주일 아침, 회사에서 종교 활동을 하라고 마련한 시간에 남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할 때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자는 강행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동기들을 보며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어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연수원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한 후에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험난하고 어렵다는 취업의 문을 통과해 온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쥐고 다시 전진하는 저희들의 힘찬 발걸음 앞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젊음의 열정을 불사르는...



안용주(청년부)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 드립니다. 76년생 청년부 안용주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비전을 가지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태훈 목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오정식 목사님께서 청년부로 오신 것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수고하신 지난 임직원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감절로 사랑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음의 열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살라 제게 주신 저의 지경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불꽃 청년'될 것 믿고 기도합니다.

지난 신년에는 미국 서부에 있는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며 윤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때는 늘 서울교회 이야기로 밤이 새는 줄 모릅니다.

멀리 있으니 함께 할때 잘 몰랐던 사랑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눌 지체들을 주셔서...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1.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영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2. 지혜와 집중력 기억력, 언어적 감각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하소서.
3. 이제 섬길 사역지를보여 주소서.
4.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들이 구체화 되어 길이 열리도록...
5. 고국에 계신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6. 건강과체력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춥고 건조합니다. 교회학교, 찬양대 등 모든 부서를 마친 후 반드시 뒷 정리와 청소를 하여 다음 시간에 사용하는 부서에서 좀 더 쾌적하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월) 서울여대 인사위원회, 24일(목)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한국 동문회에 참여하고 24일(목) 로스앤젤레스 열린 문교회 집회인차 출국 3월 3일(목) 귀국한다.
- 득녀: 이영희, 지정선 성도(7교구) 18일 득녀(이상호 집사,김자순 권사 손녀).
- 주간식당 봉사: 당회원(2월 20일) 스테반회(2월 27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은혜 찬만도록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미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